



서부 지역 밀알이 연합해 사랑의캠프를 베이커스필드에 개최했다.

## “장애와 비장애 뛰어넘는 구원의 은혜”

### 美 서부 밀알 연합해 사랑의캠프

미주밀알선교단 내 남가주, 북가주, 밴쿠버 지역 밀알이 연합해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사랑의캠프를 개최했다. 미 서부 지역이 연합해 개최하는 사랑의캠프는 올해로 19회를 맞이했으며 올해도 400여명 이상의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UC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 행사를 해 왔으나 올해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베이커스필드의 한 호텔을 빌렸다.

올해 사랑의캠프는 “Holy SWAG

(Spirit with Amazing Gift)”라는 주제 아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는 말씀을 붙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교회 연합 찬양선교팀인 PPOG가 찬양을 인도하고 청년자원봉사팀 TRAC가 프로그램 진행을 돕는 등 밀알의 사역자와 스태프,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캠프를 진행해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예연과 마찬가지로 모든 참가자

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족식과 성찬식이 거행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나누었다.

밀알의 한 관계자는 “봉사자들이 장애인들의 발을 정성스레 닦아주는 세족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과 섬김을 몸소 실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성찬식은 미주밀알 이사장인 김영길 목사가 집례하는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시간이었다.



총회장 알렉산더 전 박사 © PCA General Assembly

## PCA 총회장에 한인 2세 알렉산더 전 박사

PCA(미국장로회) 총회장(Moderator)에 한인 2세 알렉산더 전(Alexander Jun, 48) 박사가 선출됐다. 전 박사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서 열린 제45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전 박사는 한인 2세가 중심이 된 뉴라이프선교교회의 설립 멤버이면서 장로다. 이 교회는 남가주 풀러튼에 있으며 담임은 박영배 목사다.

미국 주류교단에서 한인이 총회장이 된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PCA는 보수 백인 중심 교단으로 알려져 있다. PCA는 1973년 당시 PCUS(남장로회)의 자유주의화를 거부하던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됐다. 2016년 통계로 교단 산하 82개 노회 가운데 한인노회는 9개가 있으며, 한인교회는 212개로 전체 1,861개 교회 중 11.4%를 차지한다. 한인 목회자는 606명으로 전체 4,630명 중 13.3%다.

1년 임기의 PCA 총회장은 일반적으로 '목사'라 부르는 강도 장로(Teaching Elder)와 '장로'라 부르는 치리 장로(Ruling Elder)가 번갈아 선출된다. 미국 교단에서 'Moderator'는 회의를 진행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의장'이라는 번역이 더 적합하지만, 한인교회 정서를 고려해 총회장이란 번역이 더 자주 사용된다.

전 박사는 버지니아 주에서 출생했다. USC(남가주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재학 당시 한인 2세 대학생 선교단체인 KCM(Korean American Campus Mission)에서 활동했다. 켈스태이트대학교(LA)에서 고등교육상담으로 M.S. 학위, USC에서 교육행정으로 Ph.D.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아주사피서피대학의 교수이며 TED에 연사로 나온 적도 있다. 아내 지니 김 씨는 켈대학원(Keck Graduate Institute of Claremont)에서 약학 교수로 있다.

김준형 기자

## 원하트 미니스트리 “한여름밤의 예배 축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GBC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한여름밤의 예배 축제가 열린다. 원하트 미니스트리(One Heart Ministry)는 2년 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자체적인 찬양 모임을 열었으며 한 달에 한 번씩은 찬양 사역자를 초대해 함께 예배했다.

그동안 정기적인 모임으로 자리 잡았는데 굳이 “한여름밤의 예배

축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행사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는 4주간 연속으로 찬양사역자들을 초대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길 바라고 때문이다. 이 단체를 섬기는 피터 박 목사는 “예배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오며, 예배의 열정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7월 25일에는 이실라 찬양사역자, 8월 1일에는 이병하 예배사역

자, 8월 8일에는 허지에 예배사역자, 8월 15일에는 강명식 찬양사역자가 각각 참여한다.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CCM 음반 제작, 찬양 집회, 공연기획 사역을 하는 문화선교단체로서 WTcon(월드투게더콘서트), 아름다운 예배 ‘동행’, CCM 루키 경연대회, 한국 사역자 투어 등 미주 사회의 기독교문화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문의) 213-347-5080

## 뉴홀교회 연합찬양집회 개최

남가주 발렌시아에 있는 뉴홀교회(송인철 목사)가 오는 7월 29일(토) 오후 6시 ‘좋은 씨앗’과 ‘리디머 프레이즈’를 초청해 연합찬양집회를 연다. 좋은 씨앗은 이유정, 이강혁 목사 남성 듀엣으로 1천여 번 이상의 집회와 여러 음반 활동으

로 잘 알려져 있다. 리더머 프레이즈는 2002년에 만들어진 찬양팀으로 청소년뿐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다. 뉴홀교회는 나사렛 교단 소속이며 주소는 23857 The Old Rd, Newhall, CA 91321, 전화는 661-219-5758다.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가 없는 교회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입니다.

남가주 지역교회를 섬기는

# 제2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참가신청 QR CODE)

- 기간** 2017년 7월 24일(월) - 26일(수)
- 장소**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 대상** 한인 중, 고등부 학생(6~12학년)
- 모집기간** 7월 9일(주일)까지 (선착순 120명)
- 등록비** 무료
- 강사** 주강사 - David Kim 목사 / 간증 - 최유진 KCCC 간사 / 찬양집회 - 이실라 찬양사역자
- 신청방법** www.lafgc.com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문의**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Tel. 951-928-4415)





한인들이 6.25를 기념하는 예배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사랑의띠선교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했다.

# “한미 하나돼 전 세계 선교 이끌 것”

## 남가주목사회 주최 6.25 기념 구국기도회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구 목사) 주최로 '6.25 한국전쟁 67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6월 25일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안철수 장로), JAMA(대표 강순영 목사), 미주기독교총연합회(서부지역회장 민승기 목사), 미주예곡목사연합회(회장 김종권 목사), 3.1 USA(대표 김경희) 등 20개 한인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열렸다.

김영구 목사는 “수많은 희생의 피흘림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면서 “67년이 지난 지금 6.25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보다 조국을 더 사랑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빛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자”고 말했다.

LA한인회의 로라 전 회장은 기념사에서 “6.25는 북한 공산정권이 자유대한민국을 무력으로 공산

화하기 위해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이후 휴전협정을 맺기까지 UN군 포함 약 250만 명의 꽃다운 목숨들이 나라를 지키다 산화했으며, 약 1천만 명에 가까운 전쟁 피해자가 발생한 근대사 최악의 재난이었다”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금은 전쟁을 멈춘 휴전 상태이며 우리의 주적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정권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1부 예배와 2부 기도회를 열린 이날 행사는 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 부회장 샘신 목사의 인도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상, 심진구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의 대표기도, 3.1절 합창단의 특별찬양 후 JAMA 대표인 강순영 목사가 시편 144편 15절을 본문으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증거하고 “마지막 때 미국과 통일 한국이 하나되어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 것”이라 설교했다.

남가주한인여성목사의 회장 김헬렌 목사의 봉헌기도 후 김영구 목사의 인도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남가주한인목사회 직전회장 엄규서 목사) △군건한 한미 동맹을 위해(OC교협 회장 이호우 목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안철수 장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미주예곡목사회 서부지구 회장 브랜든 송 목사) △북한 동포들을 위해(남가주이북5도민중양회 회장 조선훈 장로) △북한정권 타도를 위해(OC한인목사회 부회장 박희성 목사)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을 위해(OC한인여성목사회 회장 이선자 목사)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 후 김재중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라”

## 장애인 섬기는 사랑의띠 18주년 맞이

사랑의띠선교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를 드렸다. 담임 김전한 목사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돕자는 마음으로 설립된 사랑의띠선교교회가 불신자 장애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18년간 쓰임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 교회는 사랑의띠선교회란 이름으로 미국과 한국의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으며 한국 엘림장애인선교회 LA 지부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 30분 열린 예배에서는 임상철 목사가 기도하고 과거 한국 엘림장애인선교회 산상성회 장면을 동영상으로 시청했다. 이어 소프라노 에스더 진 선교사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날 설교한 류창렬 목사(필리핀남동산교회)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설

명했다. 그는 성도들을 향해 “평생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며 “사랑의띠선교교회와 선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민경 선교사가 섬기는 바 디워십팀이 나와 공연을 했으며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이제 가야할 그 길은’을 찬양하며 사명을 재확인했다. 모든 행사는 최혜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사랑의띠선교교회는 오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포천에서 열리는 제28회 엘림장애인 산상성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교회는 매주일 오전 10시 45분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배 드린다. 주소) 1300 W. Olympic Blvd. #200 Los Angeles, CA90015 문의) 213-736-6625

# “불이 붙고 싶다면... 하나님의 의도로 성경을 보자”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다.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의도(목적)를 파악하는 것은 모든 목회자의 소망이다. 성경의 문장 구조를 파악해 시각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지난 6월 22일 기독교일보 주최로 컨퍼런스 룸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구문분석을 통한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 담임, 그레이스미션대, 미주장신대 설교학 교수)는 “성경은 백 번을 읽어도 영롱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책이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의 구조 안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를 통해 쓰신 성경의 전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로 된 ‘주

문장’과 ‘수식하는 문장’을 파악하는 훈련을 통해 마치 성경이 살아서 움직여 계속 그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데 큰 유익이 있다”면서 “성경의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이 처음에는 낯설지만 이 훈련을 통해 설교를 작성하고 성경공부의 교재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는 큰 유익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문장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사’가 주 문장이고 나머지 문장은 ‘수식부’와 ‘종속문장’이란 것. 수식하는 문장 내에서 주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에서 주어와 동사 어느 한 쪽을 수식하는 의미단위이며, 종속문장은 주 문장을 수식하는 것으로 이유, 목적, 결과, 동격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이렇게 성경을 분석해 보는 훈련을 통해 그 본문의 흐름을 파악하고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성경을 보는 훈련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며, 머리에 성경 구절만 떠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설교 시간에 집중이 대단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던 은혜한 인교회 이미션 권사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귀납적 성경공부를 기대했던 저에게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방식의 성경 연구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말씀 안에서 주어와 동사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음을 배운 귀한 시간이었다”고 전



본지 컨퍼런스 룸에서 귀납적 성경 연구 세미나가 열렸다.

했다. 한편, 본지는 10주 코스로 “제1기 구조분석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본지를 통해서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 장미경 찬양집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9:1-2)

7/2(일)	주성선교회	7/26(수)	토론펙로교회
7/5(수)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7/28(금)	주님의교회 (벤츠히카운티의 따우전옥스)
7/9(일)	애너하임한인장로교회	7/30(일)	남가주사랑의교회 (현금특송)
7/16(일)	LA선교교회	7/31(월)	한국 출발
7/18(화-25(화))	GA, SC		

### 장미경

#### Profile & Ministry

서울음대 성악과 졸업  
 2002년 '하나님의 손길' 앨범 발매  
 2004년 '하나님의 약속' 앨범 발매  
 2008년 일본어음반 '하나님의 손길' 과 '하나님의 약속' 발매  
 미주 미국교회와 한인교회 대상 찬양사역  
 국내외 여러 단체와 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 활발히 활동 중  
 농촌교회 미자립교회 찬양집회 자원봉사

찬양사역에 관심있는 교회 또는 공동체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장미경 집사  
 홈페이지 www.mickiepark.com  
 전화 010-2224-1339 / +1-714-889-8842(미국)  
 E-mail mickiepark91@hanmail.net

장미경 집사는 천사의 목소리를 지닌 맑고 고운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정통 클래식 음악 수련을 받았지만 영적 교감을 더 소중히 여기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녀의 찬양은 미국과 한국등지에서 영혼의 깊은 울림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낮은 곳의 이웃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노래로 전하는 찬양 전도자입니다. 그녀의 찬양으로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십시오.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





성서화본부가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6월 27일 개최했다.

# 종교개혁과 이민교회를 논한다

##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 포럼과 설교 페스티벌

미주성서화운동본부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두 가지 기념사업을 준비 중이다. 송정명 대표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미주 한인 기독교계에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에 즈음해 이 행사들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500주년 기념 포럼이다. “종교개혁과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아래 11월 7일(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주님의영광교회에서 행사가 열린다. 박경수 박사(장신대 교수)가 종교개혁의 유산에 대해, 권연경 박사(숭실대 교수)가 현대 교회의 위기 진단과 해결에 대해, 민종기 박사(충현선교교회 담임)가 종교개혁과 이민교회의 현재, 정성욱 박사(덴버

신학교 교수)가 종교개혁과 미래,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 총장)가 종교개혁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발표 후에는 이승현 박사(ITS 총장), 고태형 박사(선한목자교회 담임), 송인서 박사(미주장신대 교수)가 논찬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종교개혁이란 주제를 놓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째로 이민교회와 연관 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번째는 500주년 기념 설교 페스티벌이다. 이 행사는 11월 4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열린다. 지난 2015년에 6개 한인 신학교가 연합해 처음 열린 바 있는 설교 페스티벌은 올해 종교개혁을 기념해 제2회가 열린다. 올해는 한인 신학

교뿐 아니라 남가주 지역 한인들이 재학하는 미국 신학교로도 그 참여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며 총 13개 학교의 참가를 예상하고 있다. 열왕기하 22:2-7, 에스겔 37:1-6, 로마서 1:15-17, 에베소서 4:17-24 등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는 성경 구절이 본문으로 선정됐으며 참가자는 한국어로 15분간 설교하게 된다. 대상 2,000불, 설교상 1,500불 등의 상금이 있다. 참가 및 마감 등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이런 행사들을 위해 성서화본부는 기념사업 임원진을 조직했다. 자문위원에 박희민·송정명 목사, 대회장엔 한기홍 목사, 공동대회장에 고승희·민종기·박성규·신승훈·진유철 목사, 운영위원장에 한기형 목사 등이다.

김준형 기자

# GMI 유스 오케스트라 콘서트 열려

지난 6월 17일 토요일 은혜한인교회 GMI 유스 오케스트라가 교회 비전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을 위한 여름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클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유니트리 사회자의 곡 설명으로 시작되었고 GMI 유스 오케스트라는 베토벤 심포니 1번과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 5번을 연주했다.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 5번은 한국에서 할



GMI 유스 오케스트라 콘서트

동하는 피아니스트 박명숙 씨와 협연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콘서트 후 청중들은 연주자들의 연주에 많은 박수를 보냈다. 지휘는 OC심포니 부지휘자이며 플러튼 칼리지에

서 바이올린을 지도하는 정승재 교수가 했다.

GMI 유스 오케스트라 오디션은 gmiorchestra@gmail.com 또는 714-318-2085로 문의하면 된다.



미국서남지방회를 섬기는 교직자와 그 가족들이 수련회에 참석했다.

# 美 예성 서남지방회 수련회 “비전 새롭게”

예수교미주성결교회(이하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회장 김영일 목사)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교직자 연합수양회를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50여 명의 교직자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수양회는 미국서남지방회가 창립된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수양회란 점에서 뜻깊었다. “비전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3일간 교직자를 위한 세미나와 연합기도회, 요세미티 투어, 조별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가졌으며, 교직자 간의 애뜻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이루었다.

이날 연합수양회 주강사로 나선 윤형식 목사(일산 동인교회 담임)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며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과제

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은혜, 섬김의 리더십 등 4가지 강의를 통해 많은 교직자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수련회에 참석한 양홍규 목사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동적인 수양회였다. 특히, 금번 수양회를 통해 영적으로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육적으로는 즐겁고 행복한 회복의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미국서남지방회는 2016년 10월 제14차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2016년 11월 남가주연결교회에서 창립됐으며 4대 핵심 사역으로 교회개혁과 선교 사역, 연합 사역과 신학교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미주동포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 평창동계올림픽 미주동포후원회 발대식

지난 6월 24일 오후 5시 LA한국문화원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미주동포후원회가 발대식을 열었다.

노승환 부장(LA한국문화원)의 사회로 시작돼 이기철 총영사와 데이빗 류 시의원 등이 축사를 전했다. 이어 평창올림픽 경기장의 준비모습을 영상으로 관람하고 한국관광공사 김태식 LA지사장이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미주동포후원회에 대한 축하 영상도 상영됐다.

2부 순서는 미주동포후원회 이병만 대표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임종훈 사무총장의 경과보고 후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축사를 최순길 공동회장이 낭독했고 이병도 공동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월드미선대학교 송정명 총장도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6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리 정

**현대 HYUNDAI**  
Pueño Hills Hyundai

철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신문 한 부의 기적” 국민일보 보내기 캠페인 후원 세미나 1차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신학생,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세미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대해 드라마를 보듯, 역사적 순서에 의해 **신교학적**으로 성경을 강의하는 세미나 입니다. 5시간의 강의를 통하여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고, 설교, 성경공부 인도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시** 2017년 7월 10일(월) 9:00AM~5:00PM  
**장소** 월드미선대학 채플홀(6층)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접수** 8:30AM~9:00AM  
회비(사전 등록): 개인 \$10, 부부 \$15(점심, 다과, 교재비 포함)  
당일 등록: 개인 \$15, 부부 \$25

**연락처**  
Jane Kim (818)383-8743 | 김중환 총무 (562)215-2634  
janeyla618@yahoo.com | joongokkim@yahoo.com

**\*식사 준비 관계로 사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김권수**  
이력 & 학력  
6/16~6/18/2017  
ASM(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선교학박사 연구논문 발표  
(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 전문 강사  
(현) ANC 인성크대학 성경학과 담당 교수  
11/2010~2012: ANC DTS 담당목사  
(현) 선교학박사(DMiss) 과정중 / 풀러신학대학원 선교신학석사(ThM) /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 월드미선대학

**강의내용**  
9:00 AM ~ 12:30 PM - 구약 강의 (창세기 ~ 말라기)  
1:30 PM ~ 4:00 PM - 신구약 중간사 & 신약 강의 (마태 ~ 요한계시록)  
4:00 PM ~ 5:00 PM - Open Discussion(Q & A, 자유토론)

• 주최: 월드미선대학(WMU) | • 후원: 국민일보, ANC 온누리교회, 월드미선대학 동창회, Tour Premier(성지순례 전문)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24>

### 터키 이스탄불 '기도의 집'

필자는 고등학생 시절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런 학교는 영어로 '크리스천 스쿨'이라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미션 스쿨'이라 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섭리이다.

당시 필자는 예수전도단 예배를 다니며 은혜를 받았다. 그때가 70년대 말이었다. 그 집회를 통해 '영혼구원,' '비전,' '열방'이란 말을 처음 접하며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며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꺼이 목숨도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친구들이 그때는 많았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우리를 틀고 인상을 쓰고 조금 더 길어지면 온갖 불평을 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교인들을 보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는 중국 파송 선교사가 있어서 나는 몇 번 중국 선교지를 방문할 때 중국 한족들의 가정교회 예배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거나 혹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다. 그들의 예배는 마치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 오전 9시에 시작한 예배가 오후 1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고 진행하다가 인도자가 일단 여기서 멈추고 점심 먹은 후에 다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눈이 퉁퉁 부은 이들이 많았다. 그들의 예배는 열정이 있고 간절하다. 절박하고 진실하다. 온 힘을 다하는 그 예배가 중국교회를 일으킬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이스탄불 허 선교사 부부의 사역은 일주일간 24시간 연속으로 총 144시간 동안 쉬지 않는 예배의 탑을 하나씩 쌓는다.

1시간짜리 맞춤형 예배에 길들여진 우리로서는 그런 예배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가능하다. 아니 그 예배가 터키를, 이스탄불을 살리고 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다. 고단하고 지치는 중에, 포기하고 싶고 딱 멈추고 싶은 한계를 극복하며 드리는 예배. 찬양과 기도 말씀의 예배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는데 시간마다 새롭다. 부흥을 실감한다. 참여하는 이들의 영성의 부흥이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영혼들을 품고 드리는 그 예배에 꼭 한 번 참여를 권한다.

나는 2007년도부터 터키선교를 시작했다. 그때 만난 선교사 중에 이스탄불에서 '기도의 집' 사역을 하던 허정학 선교사 부부가 있다. 그들이 바로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들이었다. 평신도로서 예배 인도 사역에 허 선교사처럼 깊은 영감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을 본 일이 없다. 그분의 찬양 인도는 깊은 기도로 이어지면서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된다. 그분의 예배 찬양 인도는 찬양 중 기도, 기도 중 말씀으로, 또 다시 기도로, 찬양으로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이어져간다. 신비하기까지 하다.

아! 이것이 예배구나. 나는 20여년 목회를 하며 교회에서 언지 못한 신비한 영적 교제의 체험을 하면서 참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교회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허 선교사 부부는 터키를 품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사역을 담당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목회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여러분은 예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드려 본 경험이 있는가?" 묻는다. 대부분 주일예배 시간이 유행처럼 1시간 전후 10분 정도로 정해져 있는 현대 예배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1시간 20분이 넘어 가면

###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 교회의 항일(抗日)활동 (I)



**김인수 목사**  
전 민주장신대 총장

는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이에 항거하는 운동이 사방에서 일어났고 이 운동은 의병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의병운동은 을미사변(乙未事變:명성왕후 시해 사건) 직후 충청도 보은에서 비롯됐고, 갑오경장(甲午更張) 때 단발령이 반포되면서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민간인들이 주축이 된 항일 게릴라 운동으로 사방에서 봇물 터지듯 일어나 일본군 진지를 습격하고 일본인들에 대한 테러 감행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이 의병운동은 항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동해군에 교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 특히 영·호남 지방에서는 의병들이 교회를 습격하고 교인들을 박해하여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피난가는 데까지 이르렀다. 평양 지방에서도 이 의병운동이 파죽지세로 일어나다가 급속히 자제됐는데, 그 이유를 1908년 장로교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지혜로운 교회지도자인 길[선주] 장로가 그 일의 희망 없음을 간파하고, 백성들에게 도망가지도 말고 저항하지도 말라고 설득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북쪽에서 이 혼란을 자제시킬 수 있었고, 한국을 온통 피투성이가 될 운명에서 구출할 수 있었다."

길선주 장로의 이 같은 행위, 즉 의병들의 무장폭동을 자제하라고 하는 충고가 어떤 견지에서 보면 비애국적이고, 일어나는 민중들의 항일정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길선주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 일제에 유린된 마당에 힘도, 무기도 없는 백성들이 농기구만을 가지고 막강한 무기로 중무장한 일본군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오직 무죄한 백성들끼리 흘리는 일만을 되풀이 할 뿐, 아무 소득

이 없음을 간파했다. 차라리 무력 항쟁보다 힘이 없어 나라 잃음을 자성하며, 교육과 산업 증진을 통해 힘을 비축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길을 택하도록 권유했다.

백범 김구도 을사늑약이 선포되자 진남포 엠티청년회 총무로 서울에서 모이는 전국대회에 참석하였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을사강제조약 철폐를 위해, 도끼를 메고 대한문에 가서 상소했다. 그러나 그는 상소하러 간 동지들이 일제 헌병 일개 대 출동으로 즉시 해산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아무 효용이 없다 판단하고 동지들과 방침을 바꿔 각각 전국에 흩어져 교육 사업에 힘쓰기로 하였다. 그는 황해도로 내려와 처음에는 문화 초리면의 서명익숙(西明義塾)의 교원으로 일하다 후에 안악으로 옮겨 그 곳 양산학교(陽山學校) 교원이 되었다. 그는 후에 해서교육총회사건으로 투옥되었다.

당시 한국의 상황으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항일의 방법으로 무저항, 비폭력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정신이요, 러시아의 톨스토이나, 인도의 간디, 근대의 미국 흑인 민권운동가 킹 목사가 지향했던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1910년 북장로교회 선교사 블레어(W. Blair)는 "만일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항일을 선언했다면, 한국 교회는 또 다른 로마 가톨릭이 되었을 것이다"라 단언했다.

한국 교회의 항일투쟁은 이렇게 그 가파를 잡아 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론이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 것은 물론 아니다. 따라서 반세기 가까운 일제 치하에서 교회가 경과한 투쟁의 역사는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오늘에 있어 '바람직한 일어난'는 재평가 돼야겠지만, 교회의 항일투쟁 역사는 엄연한 사실이므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빼 놓을 수 없는 역사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계속>

라미라다 가든 꽃집

## La Mirada Garden Florist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양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lori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사장 : 오병익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스장 의사**      **LEE'S FUNERARIO**  
FERRARA & LEE'S MORTUARY      Un Mortuario Colonial De Empresas Ferrara

Since 1966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 의사

# 리스장 의사

더 가까이에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1966년부터 고객들을 모셔온 리스장 의사 100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넓은 파킹장과 리뉴얼 된 쾌적한 채플 비디오 모니터를 비롯한 최신 시스템, 편리한 케터링서비스와 아름다운 가든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은 리스장 의사뿐입니다 오렌지카운티에 계신다면, 리스장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인의 교회, 자택 등, 평소에 고인이 편안하게 생각하신 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왜, 리스장 의사 일까요?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 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 의사

## 리스장 의사

Lee's Mortuary FD1164



23일부터 한소망교회에서 3일간 진행된 2017 호산나복음화대회가 25일 폐회했다.

### 호산나대회 뉴저지에 새로운 활력

#### “이민교회도 변할 수 있다” 메시지 큰 희망으로 다가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에 진행된 2017년 뉴저지 호산나복음화대회가 뉴저지 교회들에 많은 도전과 과제들을 전하면서 6월 25일 폐회했다. 호산나복음화대회 3일째이자 마지막날 집회가 25일 오후 6시 한소망교회에서 진행됐다.

지난 3일간 이어진 강사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의 교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정체된 이민교회도 다시 부흥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심어줬으며 대회에 참석한 뉴저지 지역 성도들 또한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마음 깊이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회를 주최한 뉴저지교회의회(회장 김종국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본질로 돌아가자’는 가치 아래 본질 회복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호산나복음화대회는 뉴저지교회의 방향성에도 부합되는 말씀이 3일간 이어지면서 뉴저지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의 단합과 변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날 집회는 윤명호 목사(부화장)의 사회로, 뉴저지참된교회 찬양팀 찬양경배, 김태수 목사(뉴저지침암교회) 기도, 강영안 장로(회계) 성경봉독, 아플라한인연합감리교회 할렐루야성가대 찬양, 권준 목사 말씀, 뉴욕크리스천코랄 ‘주는 그리스도 / 그가’ 특별찬양, 이정환 목사(뉴저지순복음교회) 통성기도, 송호민 목사(기록회계) 봉헌기도, 엘리트크리스천밴드 봉헌송, 장동신 목사(총무) 광고, 김종국 목사(회장) 폐회선언, 황의춘 목사(세기총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준 목사는 ‘교회, 끊임없이 변화하자’(마9:14-17)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현재 모습에 안주하려 할 때 퇴보하게 되고 이민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굳어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성결교회 창립 제41주년 기념예배 및 제3대 이기응 담임목사 취임예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뉴욕성결교회 담임 이기응 목사 취임

#### 창립 제41주년 기념예배 및 취임예식 진행

뉴욕성결교회 3대 담임으로 이기응 목사가 취임했다. 뉴욕성결교회는 ‘창립 제41주년 기념예배 및 제3대 이기응 담임목사 취임예식’을 6월 18일 오후 5시 뉴욕성결교회에서 미주성결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기응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와 아세아연합신대원에서 M.Div.와 Th.M. 과정을 마쳤다. 총서제일지방회 영복교회와 서울동지방회 샘물교회, 서울강동지방회 신광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겼다. 2012년 서울강동지방회장을 역임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유지재단 감사를 역임했다.

제1부 교회 창립 기념예배는 이용우 목사(치리목사)의 인도로 이현수 장로(중앙지방회 부회장) 기도, 류태우 목사(중앙지방회장) 설교 등의 순서로 드렸으며 제2부 이기응 담임목사 취임예식은 박찬순 목사(중앙지방회 중부감찰장) 인도로 장승기 목사(중앙지방회 북부감찰장) 기도, 박승희 장로(청빙위원장) 서약 및 치리권 부여, 취임패 전달, 장석진 목사(원로목사) 축복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3부 축하순서는 이용우 목사의 인도로 김홍석 목사(뉴욕교협 회장) 축사, 이의철 목사(미주성결교회 경증총회장) 축사, 이상복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 영상축사, 신상범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영상축사, 서울신대 83동기회 영상축사, 김상태 목사(뉴욕목사회장) 격려사, 이대우 목사(중앙지방회 남부감찰장) 격려사, 대전 CTS 오카리나 합주단 축하송, 엘리에셀 남성중창단 축하송, 이기응 목사 답사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이후 제4부 근속패 증정 및 폐회는 이기응 목사의 인도로 감사패 증정, 20년·10년 근속패 증정, 전우철 목사(중앙지방회 직전회장) 만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를 맡은 이용우 목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딤후3:14-16)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뉴욕성결교회가 지난 40여 년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자 진리의 기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왔다”면서 “3대 담임을 맞는 뉴욕성결교회가 더욱 반석과 같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결교단과 뉴욕교계 관계자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뉴욕교협 회장 김홍석 목사는 “고난과 고통의 수가 40인데 뉴욕성결교회가 이것을 마치고 41년을 맞아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교성을 무너뜨렸을 것”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가나안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셨듯이 3대 이기응 담임목사님은 40년동안 잘 쌓아놓은 그 곳에 이제 승승장구 할 것이다. 뉴욕성결교회가 뉴욕교계와 동포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철 목사는 “눈물로 40년을 세운 장석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면서 “3대 담임 이기응 목사님이 미국에 오신 것, 그리고 뉴욕에 오신 것, 그 중에도 뉴욕성결교회 오신 것을 축하드린다. 뉴욕성결교회가 이기응 목사님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태 목사는 “뉴욕성결교회는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교단과 뉴욕교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 교회이며 기초가 든든한 교회”라면서 “이기응이라는 이름대로 기도가 응답된 목사님이 시기를 바라고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기응 목사는 답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뉴욕성결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함께 나누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질중학교 / 토요일-17와 비몬트 코너  
주중사택-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세를 체험하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에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모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한국학교 토 오전 10:00-오후 1:00  
한어장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회 오전 11:00-오후 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담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장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383-2600, (213)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모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찬신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모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의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인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00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액예배(매일) (스페이스)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믿음,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초를 소. 친 초 정신의 초를, 바른교회관의 초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모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모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박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사탄의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수요평티모일 :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강장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영성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신용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민들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김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공복학교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일-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공복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장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최승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토요일예배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 회-금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하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일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 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초중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예배 성경공부 10:4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2부 11:00, 매일 회-금 오전 6: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살아가는 교회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께 갈라리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윤 목**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 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아침 청년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Awana 오후 8:00 (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새벽예배 오전 5:30 (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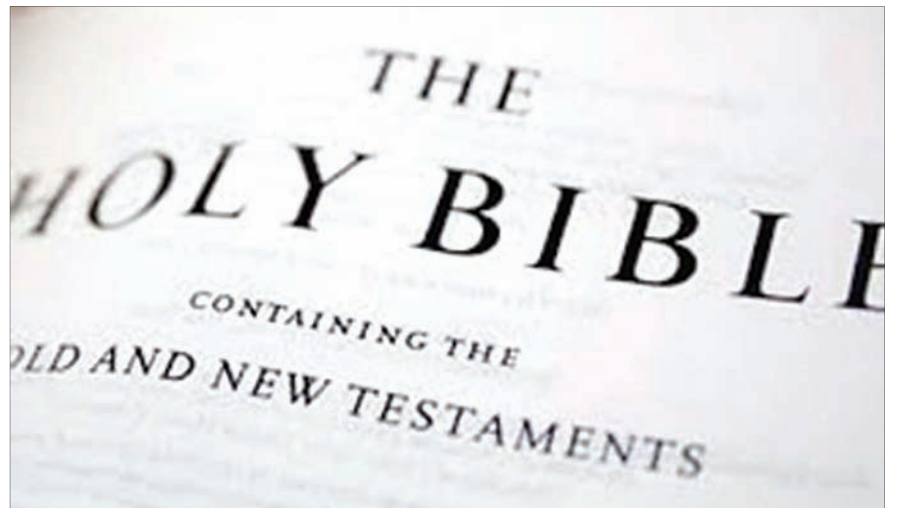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주일 어린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기독교인 10명 중 7명 “삶의 답 성경”

1주일 평균 성경읽기 시간은 1시간 45분

한국 기독교인들 4명 중 3명은 성경을 가끔씩이라도 읽으며, 1주일 평균 성경읽기 시간은 1시간 45분(하루 15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다, 감동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도 많지만, ‘이해가 안 간다, 분량이 많다’는 부정적 느낌도 적지 않았다.

이는 ‘드라마바이블’을 제작한 지앤엠(Grace & Mercy) 글로벌문화재단(대표 문애란, 이하 지앤엠)에서 지앤엠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7백 명을 대상으로 한국 기독교(개신교)인들의 성경읽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지앤엠 측은 콘텐츠 확산과 활용 방향 설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도들의 성경읽기를 독려하려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성경의 의미와 성경읽기, 성경책/성경 앱 보유, 기독교 서적 읽기, 교회 출석 등 10가지 주제로 총 56문항을 질문했다.

간 이상’도 각각 12.7%와 9.0%로 20% 이상이였다.

주 1회 이상 읽는다는 377명(53.8%)에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이유’를 질문했다. 역시 ‘영적 성장’이 38.4%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말씀 적용’이 29.0%,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가 19.6% 순이었다. ‘도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는 1.9%로 가장 낮았다(교회에서 그렇게 권유해서 4.5%, 통독 및 다독을 위해 3.9%). 성별로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남성(25.2%)이 여성(16.3%)보다 높았고, ‘영적 성장(남 34%, 여 40.4%)’ 및 ‘말씀 적용(남 25.5%, 여 31.1%)’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가’에는 ‘어렵다’가 64.0%로 ‘어렵지 않다’ 33.6%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다(모르겠다 2.3%). ‘어렵다’는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의지가 약해서’가 39.4%로 가장 높았고,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30.7%, ‘삶이 너무 바빠서’ 25.0% 등의 순이었다.

1. 기독교인에게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응답이 71.5%로 월등히 높았으며, ‘지혜의 책(11.5%)’, ‘절대 불변의 진리(6.6%)’, ‘종교서적(6.6%)’, ‘베스트 & 스테디 셀러(2.2%)’ 등이 뒤를 이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응답자는 여성(75.2%), 화이트칼라(74.2%) 및 가정주부(74.4%), 서리집사(84.4%), 신앙이 깊을수록(깊다 83.1%, 보통 73.3%, 깊지 않다 57.0%), 교회출석자(75.5%), 성경통독 경험자(79.7%), 1년간 신앙서적 경험자(75.3%), 드라마바이블 사용의향자(75.0%) 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성경 읽기 방법으로는 ‘그때 그때 자유롭게’ 32.7%

성경 읽기 방법으로는 ‘그때 그때 자유롭게’ 32.7%, ‘순서대로’ 28.5%, ‘스케줄을 따라’ 16.0%, ‘주제에 맞춰’ 10.2%, ‘QT책’ 8.8% 순으로 나타났다.

3. 성경 권별 선호도와 난해도

‘성경 66권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3가지를 답하게 한 결과, 시편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잠언이 35.5%로 뒤를 이었다. 마태복음 31.5%, 요한복음 25.9%, 창세기 25.8% 등도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 11.8%, 사도행전 11.7%, 로마서 10.6%, 누가복음 9.9%, 고린도전후서 6.8%, 마가복음 6.2%, 출애굽기 5.7%, 이사야 4.4%, 에베소서·요기 4.1%, 히브리서 3.1%, 빌립보서·전도서 3.0% 순이었다.

가장 낮은 선호도는 0.3%의 요나서와 데살로니가전후서, 유다서였으며, 디모데전후서 0.4%, 느헤미야·말라기 0.5%, 룻기와 요한1·2·3서 0.7%, 사무엘상하·에스겔 0.8%, 민수기·아가사·열왕기상하 0.9%도 순위가 낮았다.

이외에도 요한계시록 11.8%, 사도행전 11.7%

남성의 경우 마태복음(37.0%)과 창세기(35.0%)를 많이 선택해 읽었고 여성들은 시편(50.0%)과 잠언(40.8%)가 압도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경우 사도행전(23.9%), 60대 이상은 마태복음(39.3%)을 많이 골랐으며, 교회 비출석자는 마태복음(36.7%)과 창세기(27.2%)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성경은 제외하고, ‘삶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는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72.6%가 ‘있다’, 27.4%가 ‘없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삶의 답을 성경에서 찾는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

‘성경을 읽을 때의 느낌’에 대해선 ‘깨달음이 있다’가 54.6%로 가장 높았고, ‘이해가 안 간다’ 38.8%, ‘감동된다’ 36.5%, ‘분량이 많다’ 35.4%, ‘찝찝하다’ 25.8%, ‘지루하다’ 24.5%, ‘신기하다’ 22.7%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성경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지만, ‘이해가 안 가고’, ‘분량이 많고’, ‘지루하고’, ‘졸립다’는 부정적 인식도 있었다.

2.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예배시간을 빼고(큐티는 포함)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는지 물었더니, ‘거의 읽지 않는다’가 25.3%, ‘읽는다’가 74.7%였다.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매일’과 ‘일주일’에 2-3번’이 각각 19.5%, ‘일주일에 1번’이 14.8%, ‘월 1-2회’가 11.7%, ‘그 이하’가 9.2%였다. 전체 성도들 중 43.8%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읽는다’고 응답했다.

‘지난 1주일 동안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느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더니, ‘읽은 적 있다’ 71.8%, ‘읽은 적 없다’가 28.2%였다.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30분 이하’ 17.4%, ‘1-2시간’ 17.1%, ‘30분-1시간’ 15.5% 등 전체적으로 1시간 이상 읽는 응답자가 39.0% 정도였다. ‘2-4시간’, ‘4시

간 이상’도 각각 12.7%와 9.0%로 20% 이상이였다.

주 1회 이상 읽는다는 377명(53.8%)에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이유’를 질문했다. 역시 ‘영적 성장’이 38.4%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말씀 적용’이 29.0%,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가 19.6% 순이었다. ‘도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는 1.9%로 가장 낮았다(교회에서 그렇게 권유해서 4.5%, 통독 및 다독을 위해 3.9%). 성별로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남성(25.2%)이 여성(16.3%)보다 높았고, ‘영적 성장(남 34%, 여 40.4%)’ 및 ‘말씀 적용(남 25.5%, 여 31.1%)’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가’에는 ‘어렵다’가 64.0%로 ‘어렵지 않다’ 33.6%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다(모르겠다 2.3%). ‘어렵다’는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의지가 약해서’가 39.4%로 가장 높았고,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30.7%, ‘삶이 너무 바빠서’ 25.0% 등의 순이었다.

성경 읽기 방법으로는 ‘그때 그때 자유롭게’ 32.7%, ‘순서대로’ 28.5%, ‘스케줄을 따라’ 16.0%, ‘주제에 맞춰’ 10.2%, ‘QT책’ 8.8% 순으로 나타났다.

3. 성경 권별 선호도와 난해도

‘성경 66권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3가지를 답하게 한 결과, 시편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잠언이 35.5%로 뒤를 이었다. 마태복음 31.5%, 요한복음 25.9%, 창세기 25.8% 등도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 11.8%, 사도행전 11.7%, 로마서 10.6%, 누가복음 9.9%, 고린도전후서 6.8%, 마가복음 6.2%, 출애굽기 5.7%, 이사야 4.4%, 에베소서·요기 4.1%, 히브리서 3.1%, 빌립보서·전도서 3.0% 순이었다.

가장 낮은 선호도는 0.3%의 요나서와 데살로니가전후서, 유다서였으며, 디모데전후서 0.4%, 느헤미야·말라기 0.5%, 룻기와 요한1·2·3서 0.7%, 사무엘상하·에스겔 0.8%, 민수기·아가사·열왕기상하 0.9%도 순위가 낮았다.

남성의 경우 마태복음(37.0%)과 창세기(35.0%)를 많이 선택해 읽었고 여성들은 시편(50.0%)과 잠언(40.8%)가 압도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경우 사도행전(23.9%), 60대 이상은 마태복음(39.3%)을 많이 골랐으며, 교회 비출석자는 마태복음(36.7%)과 창세기(27.2%)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성경은 제외하고, ‘삶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는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72.6%가 ‘있다’, 27.4%가 ‘없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삶의 답을 성경에서 찾는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

‘성경을 읽을 때의 느낌’에 대해선 ‘깨달음이 있다’가 54.6%로 가장 높았고, ‘이해가 안 간다’ 38.8%, ‘감동된다’ 36.5%, ‘분량이 많다’ 35.4%, ‘찝찝하다’ 25.8%, ‘지루하다’ 24.5%, ‘신기하다’ 22.7%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성경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지만, ‘이해가 안 가고’, ‘분량이 많고’, ‘지루하고’, ‘졸립다’는 부정적 인식도 있었다.

2.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예배시간을 빼고(큐티는 포함)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는지 물었더니, ‘거의 읽지 않는다’가 25.3%, ‘읽는다’가 74.7%였다.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매일’과 ‘일주일’에 2-3번’이 각각 19.5%, ‘일주일에 1번’이 14.8%, ‘월 1-2회’가 11.7%, ‘그 이하’가 9.2%였다. 전체 성도들 중 43.8%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읽는다’고 응답했다.

‘지난 1주일 동안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느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더니, ‘읽은 적 있다’ 71.8%, ‘읽은 적 없다’가 28.2%였다.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30분 이하’ 17.4%, ‘1-2시간’ 17.1%, ‘30분-1시간’ 15.5% 등 전체적으로 1시간 이상 읽는 응답자가 39.0% 정도였다. ‘2-4시간’, ‘4시

간 이상’도 각각 12.7%와 9.0%로 20% 이상이였다.

주 1회 이상 읽는다는 377명(53.8%)에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이유’를 질문했다. 역시 ‘영적 성장’이 38.4%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말씀 적용’이 29.0%,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가 19.6% 순이었다. ‘도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는 1.9%로 가장 낮았다(교회에서 그렇게 권유해서 4.5%, 통독 및 다독을 위해 3.9%). 성별로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남성(25.2%)이 여성(16.3%)보다 높았고, ‘영적 성장(남 34%, 여 40.4%)’ 및 ‘말씀 적용(남 25.5%, 여 31.1%)’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가’에는 ‘어렵다’가 64.0%로 ‘어렵지 않다’ 33.6%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다(모르겠다 2.3%). ‘어렵다’는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의지가 약해서’가 39.4%로 가장 높았고,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30.7%, ‘삶이 너무 바빠서’ 25.0% 등의 순이었다.

성경 읽기 방법으로는 ‘그때 그때 자유롭게’ 32.7%, ‘순서대로’ 28.5%, ‘스케줄을 따라’ 16.0%, ‘주제에 맞춰’ 10.2%, ‘QT책’ 8.8% 순으로 나타났다.

3. 성경 권별 선호도와 난해도

‘성경 66권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3가지를 답하게 한 결과, 시편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잠언이 35.5%로 뒤를 이었다. 마태복음 31.5%, 요한복음 25.9%, 창세기 25.8% 등도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 11.8%, 사도행전 11.7%, 로마서 10.6%, 누가복음 9.9%, 고린도전후서 6.8%, 마가복음 6.2%, 출애굽기 5.7%, 이사야 4.4%, 에베소서·요기 4.1%, 히브리서 3.1%, 빌립보서·전도서 3.0% 순이었다.

가장 낮은 선호도는 0.3%의 요나서와 데살로니가전후서, 유다서였으며, 디모데전후서 0.4%, 느헤미야·말라기 0.5%, 룻기와 요한1·2·3서 0.7%, 사무엘상하·에스겔 0.8%, 민수기·아가사·열왕기상하 0.9%도 순위가 낮았다.

남성의 경우 마태복음(37.0%)과 창세기(35.0%)를 많이 선택해 읽었고 여성들은 시편(50.0%)과 잠언(40.8%)가 압도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경우 사도행전(23.9%), 60대 이상은 마태복음(39.3%)을 많이 골랐으며, 교회 비출석자는 마태복음(36.7%)과 창세기(27.2%)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성경은 제외하고, ‘삶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는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72.6%가 ‘있다’, 27.4%가 ‘없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삶의 답을 성경에서 찾는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

‘성경을 읽을 때의 느낌’에 대해선 ‘깨달음이 있다’가 54.6%로 가장 높았고, ‘이해가 안 간다’ 38.8%, ‘감동된다’ 36.5%, ‘분량이 많다’ 35.4%, ‘찝찝하다’ 25.8%, ‘지루하다’ 24.5%, ‘신기하다’ 22.7%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성경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지만, ‘이해가 안 가고’, ‘분량이 많고’, ‘지루하고’, ‘졸립다’는 부정적 인식도 있었다.

2.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예배시간을 빼고(큐티는 포함)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는지 물었더니, ‘거의 읽지 않는다’가 25.3%, ‘읽는다’가 74.7%였다.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매일’과 ‘일주일’에 2-3번’이 각각 19.5%, ‘일주일에 1번’이 14.8%, ‘월 1-2회’가 11.7%, ‘그 이하’가 9.2%였다. 전체 성도들 중 43.8%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읽는다’고 응답했다.

‘지난 1주일 동안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느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더니, ‘읽은 적 있다’ 71.8%, ‘읽은 적 없다’가 28.2%였다.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30분 이하’ 17.4%, ‘1-2시간’ 17.1%, ‘30분-1시간’ 15.5% 등 전체적으로 1시간 이상 읽는 응답자가 39.0% 정도였다. ‘2-4시간’, ‘4시

간 이상’도 각각 12.7%와 9.0%로 20% 이상이였다.

주 1회 이상 읽는다는 377명(53.8%)에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이유’를 질문했다. 역시 ‘영적 성장’이 38.4%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말씀 적용’이 29.0%,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가 19.6% 순이었다. ‘도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는 1.9%로 가장 낮았다(교회에서 그렇게 권유해서 4.5%, 통독 및 다독을 위해 3.9%). 성별로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남성(25.2%)이 여성(16.3%)보다 높았고, ‘영적 성장(남 34%, 여 40.4%)’ 및 ‘말씀 적용(남 25.5%, 여 31.1%)’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가’에는 ‘어렵다’가 64.0%로 ‘어렵지 않다’ 33.6%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다(모르겠다 2.3%). ‘어렵다’는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의지가 약해서’가 39.4%로 가장 높았고,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30.7%, ‘삶이 너무 바빠서’ 25.0% 등의 순이었다.

성경 읽기 방법으로는 ‘그때 그때 자유롭게’ 32.7%, ‘순서대로’ 28.5%, ‘스케줄을 따라’ 16.0%, ‘주제에 맞춰’ 10.2%, ‘QT책’ 8.8% 순으로 나타났다.

3. 성경 권별 선호도와 난해도

‘성경 66권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3가지를 답하게 한 결과, 시편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잠언이 35.5%로 뒤를 이었다. 마태복음 31.5%, 요한복음 25.9%, 창세기 25.8% 등도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 11.8%, 사도행전 11.7%, 로마서 10.6%, 누가복음 9.9%, 고린도전후서 6.8%, 마가복음 6.2%, 출애굽기 5.7%, 이사야 4.4%, 에베소서·요기 4.1%, 히브리서 3.1%, 빌립보서·전도서 3.0% 순이었다.

가장 낮은 선호도는 0.3%의 요나서와 데살로니가전후서, 유다서였으며, 디모데전후서 0.4%, 느헤미야·말라기 0.5%, 룻기와 요한1·2·3서 0.7%, 사무엘상하·에스겔 0.8%, 민수기·아가사·열왕기상하 0.9%도 순위가 낮았다.

남성의 경우 마태복음(37.0%)과 창세기(35.0%)를 많이 선택해 읽었고 여성들은 시편(50.0%)과 잠언(40.8%)가 압도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경우 사도행전(23.9%), 60대 이상은 마태복음(39.3%)을 많이 골랐으며, 교회 비출석자는 마태복음(36.7%)과 창세기(27.2%)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성경은 제외하고, ‘삶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는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72.6%가 ‘있다’, 27.4%가 ‘없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삶의 답을 성경에서 찾는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

‘성경을 읽을 때의 느낌’에 대해선 ‘깨달음이 있다’가 54.6%로 가장 높았고, ‘이해가 안 간다’ 38.8%, ‘감동된다’ 36.5%, ‘분량이 많다’ 35.4%, ‘찝찝하다’ 25.8%, ‘지루하다’ 24.5%, ‘신기하다’ 22.7%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성경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지만, ‘이해가 안 가고’, ‘분량이 많고’, ‘지루하고’, ‘졸립다’는 부정적 인식도 있었다.

2.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예배시간을 빼고(큐티는 포함)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는지 물었더니, ‘거의 읽지 않는다’가 25.3%, ‘읽는다’가 74.7%였다.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매일’과 ‘일주일’에 2-3번’이 각각 19.5%, ‘일주일에 1번’이 14.8%, ‘월 1-2회’가 11.7%, ‘그 이하’가 9.2%였다. 전체 성도들 중 43.8%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읽는다’고 응답했다.

‘지난



영국 버밍엄에서 2017년 감리교 총회가 열리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 영국 감리교-성공회, 상호 주교 인정

## 깊은 대화 하며 공동의 사명 강화

영국의 감리교와 성공회가 양 교회의 목사, 사제, 주교를 상호 인정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한 협의 과정에 착수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양 교회가 18세기 후반 갈라진 후 처음있는 역사적 제안으로, 채택이 될 경우 영국성공회는 영국의 감리교인들에게도 주교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최근 버밍엄에서 열린 감리교 총회에서 논의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감리교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총회장'(president) 대신 '총회장 주교'(president bishop)라는 직함을 얻게 되며, 영국성공회 주교를 포함한 3명의

주교에 의해 임명된다. 노회 간의 사역도 가능해진다.

보고서는 "이 제안이 채택된다면, 우리 교회들 사이에 새로운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공동의 사명을 강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리교회는 이제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성의 징표로서 성공회와 사역을 공유할 준비가 되었다"면서 "이를 통해 양 교회 간 새로운 차원의 교제가 가능해지고, 각 교회의 장로들에게 다른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 美서 가장 성경적인 도시는 채터누가

## 바나그룹, 131개 도시의 76,505명 상대로 인터뷰

테네시주의 채터누가(Chattanooga)가 미국에서 가장 성경적인 도시로 선정됐다. 작년에 이어 2번째다.

최근 바나그룹은 미국의 131개 도시의 76,505명의 성인들과 인터뷰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가장 성경적인 도시 10개와 반대로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도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바나그룹은 응답자들에게 '성경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읽는지,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그 결과 채터누가를 가장 성경적인 도시 1위로 선정했다. 채터누가 시민의 50%가 지난 주에 성경을 읽었고, 성경의 무오성을 강력히 믿는다고 답했다.

앨라배마주의 버밍엄, 애니스톤, 쿠스칼루사는 각각 49%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15년에는 이 도시들이 1위를 차지했었다. 버지니아주의 로어노크, 린치버그는 48%였다. 테네시주의 트리스티즈 지역도 48%로 나타났다. 루이지애나주의 슈리브포트는 47%였다.

그 다음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 미주리의 스프링필드, 아칸소의 리틀록과 파인블러프, 테네시의 녹스빌, 사우스캐

롤라이나의 그린빌, 스타르탄버그, 앤더슨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쉬빌 순이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도시는 어디일까?

뉴욕의 알바니, 스케넥테디, 트로이는 인구의 10%만이 지난 주에 성경을 읽었고,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고 답해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도시로 선정됐다. 작년에 이어 2번째다. 뉴잉글랜드가 2위, 메사추세츠의 보스턴과 뉴햄프셔의 맨체스터가 3위를 차지했다.

메사추세츠의 로드아일랜드와 뉴베드포드는 4위, 아이오와의 시더레이크와 워터루는 5위를 기록했다.

바나그룹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이들의 행동과 태도를 살폈다. 전체 순위는 다양한 미국의 도시인들의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개방성과 저항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바나그룹은 미국성서공회와 협력하여 매년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 "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죽음 두렵지 않아"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의 신앙 고백 '화제'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사상 처음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주지사가 된 바스키 차하야 푸르나마가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영상은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 페이스북에 공유되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바스키 차하야 푸르나마 주지사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저는 제 삶에서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저는 '이사'(Isa,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저는 천국에 갈 것으로 확신한다. 주지사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여러분의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뭘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 여러분은 제가 이 자리를 잃을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는가?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이다. 왜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천국으로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제가 가야할 처소가 예비돼 있고, 먹을 것 걱정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다. 저는 예수를 따르는 자이다. 그의 약속은 굉장히 명확하다. 예수님은 제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증해 주셨다.

그것이 저의 믿음의 확증들이다. 제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중국계 화교 출신 기독교인인 바스키 차하야 푸르나마 주지사는 재선을 준비하던 지난해 9월 이슬람 경전인 꾸란이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말에 "해당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았다면 내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무슬림 강경파는 그가 꾸란 자체를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거들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지지율이 급락한 그는 4월 19일 열린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결선투표에서 무슬림 후보에게 큰 차이로 패배했다.

당시 현지에서는 시위 배후에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경제권을 장악한 소수 화교들이 정치권력까지 손에 쥐는 것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5월 초 그에게 신성모독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무슬림 과격파의 주장에 편승해 과도한 판결을 내렸다는 논란이 일면서 각지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바스키 차하야 푸르나마 주지사 측은 국론이 더 이상 분열되면 안 된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강혜진 기자

**김인식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된 3300 세계를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5:0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 363-5887

**LA채플리스**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 363-5887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 O.C./앨버틴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회,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앤드류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전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더글러스)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년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정동석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민경엽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어져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org

**이원준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아)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가족 예배 :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박재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om

**허규담 담임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308 / us8291@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6: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민승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고현중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알찬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권혁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앨버틴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이동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예프르스콜 College 오후 1:00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com

**박경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김인철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카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중등부 오전 9:15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6:00  
4부예배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리스펙티브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최혁 담임목사**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 217-5558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 성령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www.sellacare.com SEARCH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샐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샐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sup>®</sup> 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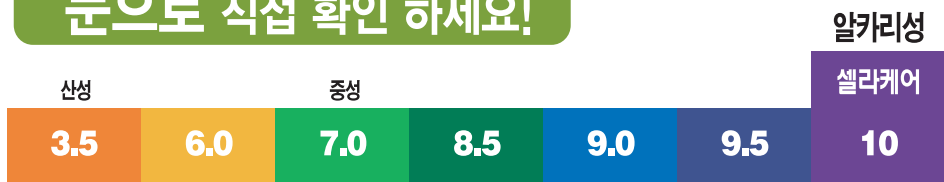
- 혈관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졸중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 SELLA CARE<sup>®</sup>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현대약국 (웨스턴+5가)	213.480.3322	세리투스 파이오니아약국	562.402.6972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213.739.303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카고 알바니아약국	847.699.1511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얼바인	949.330.900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텍사스 (Nature's Gift)	972.280.9006
시온약국	213.344.973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워к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발보아 약국	818.831.2090	로렌하이츠	626.912.5727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626.839.2868	하와이 (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든그로브 만미당원	714.333.7866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714.638.5100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세리투스 패밀리약국	562.402.0500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세리투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한국총판 010.4399.6247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 Dr. Alexander Jun Elected First Asian American Moderator of the PCA

Jun shares he considers his new position 'a tremendous honor,' and a calling

BY RACHAEL LEE

Dr. Alexander Jun, the newly elected moderato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hopes his term will be one that contributes to continuing the denomination's steps towards greater inclusion, diversity, and racial reconciliation.

"I hope that my time as moderator will be marked by a spirit of inclusivity, both in ethnic identity and diversity of thought, and that we would be reminded that, at the end of the day, we are one big family," said Jun, 48. "The things that unite us as a denomination far outweigh the things that seem to divide us."

Jun's election as the moderator of the 45th General Assembly was a historic moment for the denomination, as it marked the election of the first Asian moderator in the history of the PCA, which has almost only seen white moderators since its establishment.

It also comes a year after the PCA hosted a panel on racial reconciliation during its 44th General Assembly, during which it also approved an overture that apologized for the denomination's past racial sins and formed a Racial and Ethnic Reconciliation Study Committee. Since then, the committee has studied the PCA's current situation in regards to racial reconciliation, and how it can continue the work of greater inclusion and diversity.

Jun doesn't take the significance of his election lightly. In fact, as someone who would prefer not to be in the spotlight, he said feels

pressure that his actions and the legacy that he leaves behind may affect the opinion of some toward Asian Americans.

Yet, he said he is coming into the position feeling "tremendous honor," and with a sense of calling. With experience being the first or only Asian American in various settings previous to this position, and having grappled with his identity as a Korean American growing up, Jun said he feels that perhaps God had "been preparing [him] for that kind of scrutiny."

"I feel a lot of pressure, but it's not new to me in the General Assembly," he added. "In one sense, I feel that God has prepared me my whole life for that."

The conservative PCA denomination, which began in 1973, has a significant population of Korean churches and pastors (also called teaching elders in the PCA). Out of 4,630 total teaching elders in the denomination, 606 of them are ethnically Korean, according to statistics provided by the PCA in 2016. More than 200 of the 1,861 churches in the PCA are Korean churches, and nine of the PCA's 82 presbyteries are Korean. Jun himself has been involved in the Korean Southwest Orange County Presbytery in his capacity as a ruling elder at New Life Mission Church.

As a moderator, Jun oversaw the 45th General Assembly, the denomination's national gathering and highest decision-making body, when it gathered in Greensboro, NC from June 12 to 16. He remains the moderator until the 46th Gen-



Dr. Alexander Jun was elected the moderator of the 45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Photo courtesy of the 45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eral Assembly, and until then, he will contribute to setting direction for the denomination. As the current moderator, Jun also chairs the PCA's Cooperative Ministries Committee (CMC), which consists of presidents and coordinators of the various agencies and committees in the PCA who meet on a regular basis to discuss various denominational issues. Moderators also stay on the CMC for five years after their term.

Jun also served on the PCA's Racial and Ethnic Reconciliation Study Committee, and applauded the denomination's recent steps in ensuring greater inclusion of those from different ethnic backgrounds – but he added that racial reconciliation must be considered a continuous journey, rather than a destination that has already been

reached.

"The danger is, for some people, they might think this is the end," Jun said. "We've apologized, they've acknowledged it, that's it. But I would argue that that's the beginning, not the end."

But Jun also hopes his election would serve as a challenge and encouragement to those of ethnic minority groups in the denomination to take more initiative and become more engaged in denominational affairs. Their participation is just as important to that journey towards greater diversity, he said.

"There's something to be said about simply being present," said Jun. "I would encourage any local church member to simply go to the congregational meetings at their church, if anything but to just

vote."

Jun currently serves as a professor at Azusa Pacific University, teaching classes on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in higher education. He is also a senior research scholar at the Pullias Center for Higher Education Policy Analysis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where he also was an associate professor of higher education for seven years. He has bachelor's degrees from USC in political science and psychology; a master's degree in counseling from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and a doctoral degree in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policy from USC. Jun was also involved in the parachurch Korean American Campus Mission (KCM) during his undergraduate years at USC.

## When Religious and Sexual Freedoms Conflict, Which Is More Important? Americans Are Split

Religious and sexual freedoms have often been pitted against each other in various incidents throughout the past decades, and most recently, the issue was placed under the spotlight once again when the Supreme Court agreed to hear the case of a Colorado Christian baker who refused to bake a cake for a same-sex wedding.

In such cases as this, though almost half (48 percent) of Americans believe that religious freedom is more important when it conflicts with sexual freedom, still, the other half either believe that sexual freedom should come first (24 percent) or are not sure (28 percent), according to a study by LifeWay Research published on June 27.

"It's clear Americans value

religious liberty," said Scott McConnell, executive director of LifeWay Research. "But when it comes to sex, they aren't sure religion should have the final word. That's especially true for younger Americans and those who aren't religious."

Indeed, the study found that those in older age groups were more likely to say that religious freedom is more important. More than half of those in the 55 to 64 age group (55 percent) and those 65 or older (56 percent) said religious freedom is more important, while only 33 percent of those between 18 to 24 said the same.

Not surprisingly, those who identified themselves as being religious were also more likely to give more importance to religious

freedom. More than half of Christians (59 percent) and those who affiliated themselves with other religious (53 percent) were more likely to say that religious freedom is more important than those who said they were not religious (15 percent).

The study also asked what people believe motivates those religious believers who oppose sexual freedoms. Almost half of respondents (49 percent) said they believe faith motivates those individuals, while 20 percent said hate, and 31 percent were unsure.

"About one in five Americans—often those who aren't religious—suspect these disputes are driven by hate," McConnell said. "And a third aren't sure. That's concerning."

## Non-Profit to Provide Resources on Homeownership

Aiming to provide resources to those who hope to become homeowners in Southern California, a non-profit will be hosting an informational homeownership fair for the 16th time.

The homeownership fair, hosted by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will take place at the Southwestern Law School on Saturday, July 8 from 9 AM to 1 PM.

"Our organization has been around since 2001 and hosted the first homeownership fair ever for the Korean community in U.S. history," said Hyepin Im, the president of KCCD.

Im added she hopes the fair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homeownership to learn of the various resources

and options available to them, and for them to "know what to avoid so [they] don't become [victims] of homeownership discrimination." KCCD, which will soon be changing its name to Faith and Community Empowerment (FACE), has helped more than 8,800 potential home buyers since its beginnings.

Real estate agents, banks, and other professionals will be present at the fair, and potential homebuyers will be able to learn more about down payment assistance programs, special loan products, and how to fix, increase, and optimize credit at a seminar during the fair.

Elected officials Ed Chau, Assemblymember for the 49th District, and Los Angeles Deputy Mayor Brenda Shockley will also be attending the event.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2017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든 학위 과정을 100% 온라인 강의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소지 BA, 학생들은 연방정부 교육국으로부터 학자금 보조 (Title M) 가능. (보조는 자격 요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며 졸업후 상환하지 않음)

<p><b>1 ESL 과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절하고 우수한 강사들이 학생들의 언어 레벨에 따라 지도하는 맞춤형 언어교육</li> <li>미국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최적화된 언어교육 과정</li> </ul>	<p><b>2 학사(B.A.) &amp; 교역학석사(M.Div.) 과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의 95% 이상이 미국의 우수한 신학교에서 Ph.D. 학위 취득</li> <li>다문화, 다인종 공간에 맞는 신학교육</li> <li>경건과 학문에 기초한 선교지향적 신학교육</li> </ul>	<p><b>3 크리스천상담심리석사 (M.A.C.C.P.) 과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론과 임상을 겸비한 전원 Ph.D. 학위 소지 교수진</li> <li>성경과 복음적인 신학과 심리학의 조화로운 통전적 상담심리</li> <li>현시대에 맞는 크리스천 상담심리이론의 숙지와 실제적인 활용</li> </ul>	<p><b>4 특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교육국 승인 학교</li> <li>인터넷만 있으면 원격강의로 전세계 어디서나 학위과정 이수</li> <li>교단 산하 북미주, 중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는 470여 개 교회와 선교지와의 글로벌 네트워크</li> </ul>
---	---	--	---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a.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박정환 목사): 010-6612-1165 / 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주철현 목사): 010-9086-2458 / diakonia@gmail.com

※ 전세계 21개 지역-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 교단 목사고사는 물론 예장통합(PCK) 목사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인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노회로 이명이 가능합니다.

**ESL 문의 및 상담**

- 박동식 교수 (dspark@ptsa.edu) [www.facebook.com/SLCS.EPT](http://www.facebook.com/SLCS.EPT)

[www.ptsa.edu](http://www.ptsa.edu)

1-20 발행

정회원 **ats** 정회원 후보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Fry Pan Death: Safeguarding Against the Buildup of Sin

BY RONNIE PARK

This past Sunday during our church's sermon discussion group, I used an analogy about cookware to point out that the more we talk or think about something, the more we gain an appreciation and love for it. The depth of our knowledge will increase our enjoyment. It was meant to encourage us towards thinking about God more. But then people started asking me about fry pans.

During the discussion, I talked about how non-stick fry pans could kill you. Or at the very least, they can introduce unwanted toxins into your food if you use the pans improperly, which is super easy to do.

Most of these non-stick pans are "non-stick" because of a thin, surface-layer coating on top of an aluminum base. Aluminum conducts heat very well, which means it spreads heat evenly while cooking (this is why so much cookware has an aluminum base). But it isn't a food-safe cooking surface because your body can absorb the aluminum through eating the food that is cooked on it.

The greater danger with non-stick fry pans is actually the thin surface-layer that makes the pan "non-stick". These non-stick surfaces come in various forms, but the most famous, or infamous if you ask me, is Teflon.

When Teflon is overheated, toxic fumes are released and have even been shown to kill small birds (Caveat: birds have extra-sensitive respiratory systems). That can't be healthy. The fumes released into the air you breathe are also linked to causing flu-like symptoms in humans. Teflon can be bad.

Now, how can I possibly spiritualize toxic fry pans? Easy Peazy.

Toxic fry pans exist because hu-

mans wanted to create something to make life more convenient. Yet convenience came at a cost. When this luxury is abused, it slowly creates toxic death.

Often times, we don't think about the effects of something if there is no immediate consequence. But that doesn't mean that there aren't consequences, even deadly ones. When we abuse the conveniences of our lives, we often slowly allow a cache of toxins to build up in our lives. Toxins that will lead to death.

Fortunately, science and research have said although ingesting or inhaling Teflon is bad for you, there probably isn't a cancer link. Safer manufacturing practices have made non-stick pans safer, although you should still always follow careful instructions.

But what about other toxins in our lives? Whether it's a little materialism, a little lust, a little anger, a little gossip, a little laziness, a little folding of the hands...

Proverbs 6:10-11 tells us, "A little sleep, a little slumber, a little folding of the hands to rest, and poverty will come upon you like a robber, and want like an armed man."

James 3:5-6 states, "So also the tongue is a small member, yet it boasts of great things. How great a fire is set ablaze by such a small fire! And the tongue is a fire, a world of unrighteousness. The tongue is set among our members, staining the whole body, setting on fire the entire course of life, and set on fire by hell."

King David only had to see Bathsheba for a moment to allow the lust in his heart to grow into full blown lies and murder.

My point is this. A little sin built up over time can kill you.

James 1:15 says, "Then desire when it has conceived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y grown brings forth death."

It might not kill you right away, but make no mistake, if you let it grow, it will eventually kill you. What can we do about it? What's the answer to this slow buildup of toxins in our body? CAST IRON. Oops, I mean, JESUS CHRIST. If you are struggling with sin, allowing the little conveniences of sin to build up deadly toxins in your soul, it's time to acknowledge those things and throw them out. The Bible word is repent. Stop using them altogether and replace them completely.

When I learned about the potential risks of Teflon, I didn't want to take any chances. I threw out every Teflon pot and pan I had and replaced it with other cookware, like cast iron, stainless steel, and enameled lead-free pottery.

If you realize that there is a little sin in your life that you keep coming back to, it's time to throw it out completely. And replace them with something, someone who will not poison you, but heal you.

Hebrews 12:1-2: "Therefore, since we are surrounded by so great a cloud of witnesses, let us also lay aside every weight, and sin which clings so closely, and let us run with endu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looking to Jesus,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Ronnie Park is the lead pastor of the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at Good Stewards Church, located in West Covina, CA.

This article has been republished with permission from the SOLA Network website. SOLA exists to influence the emerging generation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Five Overcorrection Mistakes Churches Make

BY THOM RAINER

The pendulum swings in churches.

The congregation does not like a previous direction, so they overcompensate with the next move they make. Often, the overcompensation becomes a more challenging situation than the previous state.

Here are five overcorrection mistakes I frequently see in churches:

1. A different kind of pastor. The former pastor was evangelistic and outwardly focused, so the next pastor needs to be more concerned with pastoral care of the members. The former pastor preached 40 minutes, so the congregation looks for a pastor who keeps the sermon to 25 minutes or under. The former pastor led change. The new pastor needs to respect traditions. You get the picture.

2. A different emphasis on evangelism or discipleship. It is not unusual to see churches treat evangelism and discipleship as if they were two opposite spiritual disciplines. One position holds that we must be evangelistic if we are to have anyone to disciple. The other position says

we must disciple people so they will become naturally evangelistic. So churches can swing from one of these positions to the others. But the Great Commission of Matthew 28:18-20 is clear that evangelism and discipleship are both/and, not either/or.

3. A different emphasis on reaching newcomers versus taking care of the members. This story is true. A church began connecting well with newcomers in the community and grew from 110 in worship attendance to 150 in just two years. Leaders in the church determined that the pastor and staff were spending too much time on newcomers and mandated they focus almost all their time on ministering to the members. The church closed its doors three years later. Again, the decision is not either/or, but both/and.

4. A different kind of leadership structure. The church had deacons who were not healthy servant/leaders. So the congregation decided they needed to have elders. The church then had a leadership structure of unhealthy elders. It is one thing to decide biblically on a new leadership structure. But it's the wrong thing to

make the change to overcompensate for a current weak structure.

5. A different kind of system to oversee financial controls. The previous pastor and associate pastor were not good stewards of the church's funds. They incurred credit card expenses with little accountability. When they left and new leaders came in, the church decided to have a system of micromanaging every dime spent. The new leaders left within a year, frustrated at the lack of trust and lack of freedom.

Be careful when you lead a church to make substantive changes. While the change may be absolutely necessary, the change can go too far.

It's called overcompensation, and it never turns out well.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at ThomRainer.com on June 21, 2017. Thom S. Rainer serves as president and CEO of LifeWay Christian Resources. Among his greatest joys are his family: his wife Nellie Jo; three sons, Sam, Art, and Jess; and nine grandchildren. Dr. Rainer can be found on Twitter @ThomRainer and at facebook.com/Thom.S.Rainer.

한인교회를 위한 SUMMER EVENT



VBS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5.50



그 밖에도 VBS를 위한 물티슈, 가방, 배너, 포스터, 초대장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프린트CD+CD봉투+라벨] 포함입니다.

BANNER



\$65  
Stand X-Banner

\$140  
Retractable Banner

\$160  
(디자인 포함)





The U.S. Supreme Court made two significant decisions related to religious freedom during the last week of its term. (Photo: Ernest McGray Jr. / Flickr / CC)

## Church Preschool Should Have Access to State Grant for Playground Resurfacing, Court Rules

The highest court in the nation ruled that the state of Missouri had violated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 church by disqualifying it from receiving a public benefit simply on the basis that it is a church.

Trinity Lutheran Church, located in Columbia, MO, operates a preschool and daycare center, and had applied for a state grant in 2012 to resurface its pea gravel playground with the smoother and safer surface made with recycled tires.

Though the church had ranked fifth among the 44 applicants and the state had granted 14 of them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Trinity was notified that the state cannot give them the grant due to a policy prohibiting them from granting state money to church-controlled organizations.

Ultimately, the Supreme Court ruled 7-2 on June 26 that the state had discriminated against the church.

"The Department's policy expressly discriminates against otherwise eli-

gible recipients by disqualifying them from a public benefit solely because of their religious character," the Supreme Court ruling states, referring to Missouri's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which launched the Scrap Tire Program. "The Department's policy puts Trinity Lutheran to a choice: It may participate in an otherwise available benefit program or remain a religious institution."

"The express discrimination against religious exercise here is not the denial of a grant, but rather the refusal to allow the Church — solely because it is a church — to compete with secular organizations for a grant," it added.

Though the since newly elected Missouri Governor Eric Greitens has changed the state law to allow religiously affiliated organizations to be able to apply for the Scrap Tire Program, the Supreme Court was asked to still consider the case. Supporters of the church argued that the ruling would have implications for whether

religious institutions would be able to gain access to other public benefits from states, such as programs that protect schools from violence or terrorism.

Justices Sonia Sotomayor and Ruth Ginsburg dissented from the majority opinion. Sotomayor, who wrote the dissent and read a portion of it in court, argued that this "case is about nothing less tha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institutions and the civil government — that is, between church and state."

Meanwhile, advocates for religious freedom celebrated the victory. Russell Moore, president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s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ERLC), said the case "will have profound implications for years to come."

"The court did the right thing," Moore said, "because it recognized the difference between a government supporting a religion and a government treating all people fairly, including religious people."

## Supreme Court Agrees to Hear Case on Religious Objection to Baking Same-Sex Wedding Cake

The U.S. Supreme Court has announced on June 26 that it would hear a case involving a Colorado Christian baker who declined to bake a wedding cake for a same-sex couple, one which many argue may lead to implications for businesses across the country.

The case began when Jack Phillips, the owner of Masterpiece Cakeshop, had declined to bake a custom wedding cake for customers Charlie Craig and David Mullins in July of 2012. The couple then proceeded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which ruled that Phillips' actions were discriminatory.

After the Colorado Court of Appeals agreed with the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state Supreme Court refused to hear the case, 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 submitted a petition on behalf of Phillips to the U.S. Supreme Court.

Phillips' case shares similarities with several others that have been considered in lower courts across the country. Barronelle Stutzman, a florist in Washington state, declined to provide floral arrangements for a same-sex couple's wedding, an act which the Washington Supreme Court decided in February was discriminatory. Meanwhile, a Kentucky appeals court ruled in May that Blaine Adamson was not discriminating when he declined to print shirts that promoted a gay pride event.

The business owners have similarly said that while they are happy to serve customers who identify as LGBT, they cannot participate in an act or event that they believe violates their religious conscience.

Phillips "declines lucrative business by not creating goods that contain alcohol or cakes celebrating Halloween

and other messages his faith prohibits, such as racism, atheism, and any marriage not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his lawyers wrote in a brief to the Supreme Court.

Meanwhile, Erwin Chemerinsky, the dean of the School of Law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argued that when a customer requests a certain message for a cake, photograph, or T-shirt, for instance, the one engaging in speech is not the service provider, but the customer.

"If I choose the words on my cake, I'm engaging in expression. The baker is simply putting my words on a cake," Chemerinsky told Fox News.

The case,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will be heard next term, but the Supreme Court has not yet announced a date. The earliest it could be heard is the upcoming fall.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org



Since 1999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가을학기 학생모집 K-9th  
썸머 스쿨 6/5(월)~7/28(금)



무료 앱 다운로드

New Covenant Academy  
Now Available On



www.e-nca.org

##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50점 기록 (일반 학교 평균 1,000점)
- 지난 18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명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 목사 안수 및 강도사 인허

본 교단과 노회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과 사명은 있으나 아직 목사안수를 받지 못하였거나 강도사 인허를 받지 못하신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았지만 선교사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본 교단에서 선교사 라이선스를 수여합니다.

- 자격
  - 1)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 (단, 이단은 제외되며, 나중이라도 이단임이 밝혀질시 모든것은 자력으로 취소됨)
  - 2)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아 이시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자 헌신된자. 서류 : 소정의 응시원서, 추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기자신의 신앙고백서
- 시험
  - 1) 강도사 : 소정의 2주간 교육후 시험을 분후 강도사 인허
  - 2) 목사 : 소정의 교육후 시취후 목사안수  
기간 : 2017년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서류전형)  
주최 : \*All The Nation International Evangelical General Assembly  
\*Koam Presbyterian Church  
\*The Hap Dong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 신, 편입생 모집

본 신학대학원은 개혁주의 학교로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학교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캘리포니아 주교육국에 종교학교로 정식 인준 받은 학교입니다.

### ■ 학위과정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모집합니다. 특히 타 학교에 없는 사역에서 필요한 학과들이 많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사회복지학과와 크리스찬 레크레이션, 스포츠 코칭학과가 준비되어있으며, 비영리 종교단체 비즈니스 메지시먼트 학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나 사전 연락후 방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교 : 교단이나 학교는 다른 어느단체나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총장 : Dr. DAVID LEE, 학장 : Rev. YO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EL : (213)422-8916, (213)386-0300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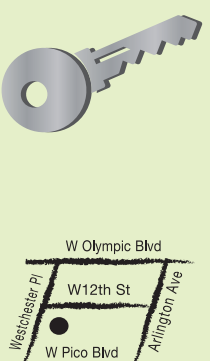
## J.C 의료 선교

수술하기도 애매하고 약을 먹어도 별 치료를 다해도 애를 먹이는 **고질병, 손목관절, 허리통증, 어깨통증, 다리관절, 이명, 고혈압, 목 아픈 갑상선, 고혈압 환자** 신기하게 치료됩니다.  
30명 선착순 선교차원에서 무료 치료합니다.  
- 국제 침술사 제임스 남



## 열쇠 기술 속성반 모집

- 1년은 배워야 하는 과정이나 3개월 안에 연수, 졸업장, 자격증을 드립니다.
- 극히 작은 장소에서 영업 가능
- 극히 작은 자금으로 영업 가능
-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자영업
- 미국 학교에서 정식 연수한 최고 기술로써 40년간 경력에 있는 열쇠 세계 최고의 고수 김재홍 선생이 직접 전수합니다.



연락처 : T.(213)298-8384, T.(907)229-5575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A, CA 90019

## 의로움을 추구하던 초대교회



민종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나를 따라오라”(마 4:19). 이는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면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외침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교회 지도자로서의 영적 자신감과 권위를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우리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란 교회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성도들의 행진이란 고난을 자처하는 “바보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장받고, 가난과 핍박을 친구처럼 가까이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대가 지나고 기독교가 로마제국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교회에 유혹거리가 들어왔습니다. 목회자가 정의의 의를 상실하고 교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대교회가 생겨나면서 후임자를 결정하는데 혈연의 영향력, 즉 족벌주의(nepotism)가 발생한 것입니다.

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헌신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한 것이 또한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족벌주의라는 영어의 ‘네포티즘’(nepotism)은 조카라는 의미의 라틴어 ‘네포테’(nepote)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감독들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에게 교회를 물려준 것입니다. 족벌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교회는 사적 기관이 아니라 공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를 공동체(communitas)요 공영체(commonwealth)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의 영적 공동자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족벌주의를 배격하려고 4세기부터 조심을 한 것입니다. 나나 내 가족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 전체의 유익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적 의로움을 추구한 것입니다.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앙의 선진들이 기울인 노력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 팔빙수 전도



김성민 목사  
펠리세이드교회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한 후식 전문집을 찾았다. 그리 큰 집도 아니고 유명한 집도 아니지만 팔빙수를 전문으로 하는 집이다. 일하시는 분의 인도로 7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로 갔다. 앉아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생각하는 중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양쪽에 앉아 있었다.

나의 오른쪽에는 두 여자 분이 자녀를 돌을 데리고 와서 팔빙수를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는 술병이 있었다. 그 후식 전문집에서 술을 팔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도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 같았다. 그들은 열심히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과히 즐거워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나의 왼쪽에 두 사람은 팔빙수를 놓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야기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높고 자리가 가깝다 보니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 나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금방 알아차렸던 것 같다. 가만히 들어보니 앞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

때문이다. 그 날 가족과 함께 맛있는 팔빙수를 먹기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왼쪽에서 복음을 열심히 말하는 그 두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 청년이 열심히 설명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장 2절)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교회 생활에 박사가 되기보다는 말씀으로 늘 새롭게 변화되어 복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는 뜻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늘 깨어 새롭게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팔빙수 집을 후식 집으로 보고 있는 목사보다, 같은 팔빙수 집을 복음 전파의 자리로 보고 있는 그 청년이 수십 배 더 훌륭하다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져 가는 시대에 더욱 믿음으로 살고 또한 담대히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 실패를 딛고 전진하기(7)



제이슨 송 교장  
새연약초중고등학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도전을 피하고 있습니까? 만약 과거의 실패 때문이라면, 과감히 재도전하고 전진하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 유명한 장군들도 백전백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백전백승하지 못했습니다. 맥아더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실패를 체험했고 낙심도 했고 두려움 때문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고 자신이 없을 때, 다시 도전하고 최선을 다했기에 그들은 위대한 사람, 큰 업적을 남긴 영웅으로 역사에 남은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루즈벨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전진도 못한다.” 미국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실수를 많이 범한 사람은 적어도 존경 받을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험을 택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실수를 피할 수 없으며, 성공보다 실수를 더 많이 체험할 것임을 잊어서 안됩니다. 두려워도 행동을 취하고 전진하세요. 실수를 통해 경험을 쌓으세요. 경험을 쌓으며 점점 자신감을 얻으세요. 그러면 실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더 생길 것이고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의 악순환을 끊는 묘수, 해결책입니다. 40세에 세계적인 음악가로 인정

받은 헨델은 음악 신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많은 고통과 문제, 아픔이 있었습니다. 헨델의 주위엔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청중의 음악 취향은 자주 바뀌었으며, 가끔 연주회에 빈 자리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헨델의 콘서트에 빈 자리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헨델은 파산을 고려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뇌졸중과 간질로 고생했고 한동안 그의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기도 했고, 오른손은 네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몸은 회복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쇠약해졌고 실패와 두려움은 헨델을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741년 그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찰스 제닝스란 친구가 헨델을 찾아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오페라 가사와 대본을 헨델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헨델은 무척 흥미로워했고 그는 곧 작곡하기로 마음먹고 총 24일간 몰두하며 작

업을 마쳤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할렐루야” 합창을 포함한 명작 중 명작, 헨델의 “메시아”입니다. 헨델이 실패를 두려워하여 망설였다면 절대 메시아를 작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겪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실패로 인해 낙심하기보다 실패를 인생의 수업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하고 배우고 실력을 쌓고 지혜를 터득하여 결국 인생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인생 초보 자이기에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호르몬과 신체, 심리적 변화로 인해 정서적 굴곡이 심한 이들은 한번 실패를 인생의 종말로 잘못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성관계에서도 한 번 데이트를 신청했다 거절 당했다든지 아니면 프롬에 아무도 자기에게 데이트 신청을 안했다든지, SAT 시험을 망쳤다든지 등 어른과 부모에게 별일 아닌 것 같은 일도 이들은 인생을 좌우하는 대사건으로 여깁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가 잘 돌봐주고 옆에서 응원해 주고 또 실패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가르치고 코칭해 줘야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떨고 불안해 하고 실패로 인해 두려움에 짓눌려 무력한 청소년들에게 “내가 함께 해 줄게.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라고 말하고 도와야겠습니다.

# 산자의 본분

누가복음 9:57-6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예수님이 비장한 각오로 죽음의 길을 찾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51을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쉴 곳을 찾아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으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이들은 감정이 앞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17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불같은 성격을 지녔음을 나타내는 별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모든 박해는 이 땅의 죄인들의 죄 때문이기에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 애쓰시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어디든 좃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같은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기본적인 기대감으로 육신적, 세상적 조건에 기대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영적 소망을 기대할 가능성조차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영적인 소망뿐이어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 근본적인 회개로 성령을 받음으로 부끄러운 자격으로 천국가지 않기 위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 확장을 위한 선교사역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 천국에 목적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조건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8절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좃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부친이 지금 죽어 장사할 때가 아니지만, 부친이 연로하여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치르고 잘 마무리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씀하며, 두 번째 ‘죽은 자들’은 육신으로 죽

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진리 안에서 거듭나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산 자이면서 죽은 자에게 매여 살리는 일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주는 직분과 직책들, 여러 모양으로 맡겨지는 일들을 여러 가지 핑계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1-2에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있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직장을 나가야 하는 형편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25-32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생활은 사회를 통해서라는 이중적인 처세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늘 조건으로 책임져 주셨다고 진정 믿어진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좃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로마서 10:13-15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전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의 사명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사명은 없습니다.

다니엘 12:3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전도회는 전도를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그 모임에는 죽은 자도 있을 것이며 산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회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먼저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을 살려 함께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산 자의 본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61절에는 “주여 내가 주를 좃겠나이 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어 새 생명을 받았습니. 그리고 쟁기를 잡은 자로 죄악에 찌들어 완악해진 심령의 발을 갈아 회개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 오던 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3-4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엄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로 믿음생활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인간관계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영적인 소망의 직분을 어떻게 균형 잡아 감당해 갈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 가족으로 더불어 명예를 같이 때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부부 또는 부모나 자녀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천국 확장과 권세를 위하여 모든 정성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없고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세상 조건만 가지고 기복적인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영적인 것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직분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더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자신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을 발미로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이는 저주받은 인생의 모형입니다.

또한 산 자의 자격으로 살리는 일에 힘써달라는 직분을 받아 놓고도 죽을 일들을 핑계 삼아 살리는 일을 지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 소망을 얻어 놓고도 세상일에 분주하여 하나님의 맡기신 직분을 게을리하고 배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말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사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미국 신문 설교		LA 미주 복음방송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권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 의사 Zo'e 조애**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Stand X-Ba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선교 찬양 단원 모집**  
 • 단장 : 1명 • 기타 : 1명  
 • 단원 : 12명 • 키보드 : 1명  
 \* 40~50대 남녀  
 \* 찬양선교에 관심있거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  
**문의 : T.(213)800-52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월 \$10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담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세 남매를 명문대에 합격시킨 부모의 실·전·교·육·노·하·우

## 공부하는 아빠 공부시키는 엄마

이 책을 읽고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유전자를 물려주고 성장시키는 생물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양육은 부모의 영혼과 자녀의 영혼이 함께 변화하는 놀라운 경험이자 축복입니다. 자녀의 인격을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 부모가 맘을 흘리며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자녀의 기쁨과 아픔을 보면서 부모가 누워치고 더 성숙해지는 쌍방향적인 사건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며 자기 스스로가 치유되고 더 나은 인간으로 나아가는 경험, 이러한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기쁨은 안달복달 입시 정보만 캐묻고 다니며 자식의 성과만 중용하는 부모가 절대 느낄 수 없는 소중한 체험입니다.

저자 김영숙  
 '한 목회자의 아내, 세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저자는 35년째 양육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용수목사의 사모이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의심치 않는 김영숙 사모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학업 퍼포먼스를 높이는 커리큘럼을 개발 운영하는 '와이즈맘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 연구소를 통해 매주 젊은 엄마들과 자신의 양육 노하우를 공유하며,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부모의 훈육 자세가 천만 원짜리 과외 공부보다 훨씬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김영숙 지음 192면 | 10,000원

저용수목사의 저서

<b>설교</b>	<b>새끼경애</b>
모든 문제의 해답 324면 / 7,000원	오늘의 드보라 312면 / 9,000원
꿈꾸는 것 같았다 408면 / 12,000원	평화롭게 사는 길 400면 / 12,000원
우리가 말한대로 408면 / 14,000원	최후의 승리 336면 / 10,000원
<b>아고보서 경애</b>	<b>미가복을 경애</b>
지혜를 얻는 열쇠 508면 / 15,000원	성도의 행복 416면 / 11,000원
<b>요한계시록 경애</b>	<b>오늘과 그날</b> 470면 / 12,000원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상) 414면 / 10,000원	주님의 약속 459면 / 12,000원
새 하늘과 새 땅(하) 484면 / 12,000원	위대한 임무 397면 / 11,000원
<b>빌립보서 경애</b>	<b>요나서 경애</b>
그리스도인의 주소 572면 / 12,000원	요나와 나 208면 / 9,000원

금란출판사 | www.gumran.co.kr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 qbooks@daum.net | 02-747-1004

신간 도서

더 깊은 사람

사바리오 먼고 | 유해룡 번역 | 두란노 | 188쪽

침묵기도 중 가장 어려운 기도이자 반대로 가장 쉬운 기도가 바로 향심기도이다. 향심기도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이 영적 여정을 보다 용이하게 해 주는 기도도, 향심기도 훈련과 렉시오 디비나 훈련들을 제시하며 이론적, 실천적 훈련 실행을 돕는다.



추천 도서

“신이 없다” 하는 시대에 우리 마음에 노크하시는 하나님

정우현 교수 신간 <신이 내 마음에 노크할 때>

“저는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어느 날 한 무신론자가 저자에게 던진 말이다. 저자는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제안한다.

“우리에게 선택 사항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이 있다’ 또는 ‘신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면 어떨까’와 ‘신이 없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이 있다면 어떨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자는 이렇게 시작된 그 날의 대화를 기반으로 이 책의 방향을 잡았다고 말한다. 신 존재에 대한 변증학책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 책 <신이 내 마음에 노크할 때>의 저자 정우현 교수는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상담학자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정 교수의 접근은 변증학적이지만 동시에 다분히 실천적이다. ‘신은 있다’는 것에 논점을 두기보다는 ‘신이 사랑이다’라는 대전제책의 처음과 끝을 관통한다. 어쩌면 “신이 있다”라는 말보다 “신이 사랑한다”는 말이 신 존재 증명이 더 강한 논리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신이 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인가? 저자는 신 존재와 인생 간의 상관관계를 일상의 예를 근거로 부드럽게 설득하고자 한다. 꽤 무미건조해질 수 있는 신 존재 이론을 부드럽고도 집요하게 전개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책의 요점은 이렇다. 신은 완전해야 신이고 신이 하는 일은 더할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 따라서 신의 창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신은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신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신의 목적은 신 자신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며 고통도 없고 사랑도 없는 상황보다 고통을 수반하는 사랑이 좋다고 말한다. 사랑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존재로서 인간은 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으며, 신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신이 내 마음에 노크할 때 정우현 두란노 | 232쪽

다. ... 자고 일어나서 주위에 동료들이 시체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동료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죽은 동료의 신발과 옷을 갖기 위해 달려들었다. 프랭클 박사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변해 가는 모습을 보며 밤마다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상기시켜 주었다.”

또한, 지구촌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의 추천사가 말해주듯 이 책은 사명을 가진 전도자와 구원에 관심이 있는 구도자 모두의 필요, 즉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책이다. 신자가 무신론자로부터 삶의 목적이나 신 존재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경우, 논쟁 대신 이 책을 매개체로 대화를 열어갈 수 있다. 삶의 이유를 찾는 구도자가 갖게 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책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기독교에 대해 막연한 새신자가 12주 과정으로 사역자와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심화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종합 정리하고 싶은 기존 신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새신자에 비해 많으므로 오히려 여러 가지 흠어져 있는 신학적 지식을 이 책을 읽으며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소통할 것인지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다. 그 밖에 유익을 얻을 만한 독자 대상 중에는 기독교 신학과 상담학 통합에 대해 연구하는 신학생도 해당될 수 있다. 신학과 상담학을 배울 때 기독교적 세계관 형성을 위한 입문서로 사용할 수 있겠다.

기독교를 외면하는 현 시대가 교회를 향해 던지는 질문, “하나님이 정말 있나?”에 대해 시원한 답 한마디라도 하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한다.



저자 정우현 교수

치유를 원하시나요

권예리 | 소리샘 | 251쪽

내적 치유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실화를 그대로 재연하고 녹음으로 기록해 집필한 책이다. 저자는 과거 수많은 떨시와 고난을 당하면서 풀리지 않는 삶의 방향이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며 달려왔다. 저자는 주변 이들이 변화와 치유를 통한 열매와 증거들을 체험하고 축복 받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제목 그대로 치유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청교도에게 길을 묻다

김홍만 | 생명의말씀사 | 232쪽

청교도 운동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직후의 신학운동으로, 그 시대에 만연했던 오류가 교회의 경건을 위협하고 거짓 신자들을 양산하는 상황에서 개혁을 위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청교도의 개혁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면서 진정한 성도를 세우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청교도들의 열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저자는 현재 한국청교도연구소 소장이며 청교도와 관련된 다수의 책을 펴냈다.



농장, 기도원, 고급주택

- 71만불의 가치—— 단 41만불
- 고급주택 3Bedroom, 3 Bathroom
- 매달 3,000불의 매실 수익
- 우물 7만불의 가치 2개 있음
- 큰 도로 옆에 있어 편리함
- 유명한 구름이 머무는 곳 근처
- 제주도 날씨와 같이 한국에서 나는 과일,야채 100%재배 가능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터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엘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엘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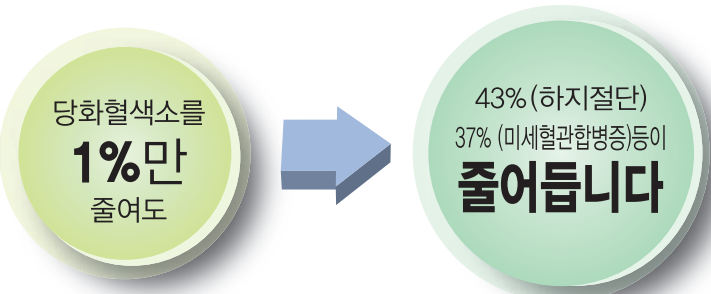
##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37%	21%	14%	12%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 관련사망	심장마비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대학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